

#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Career Identity and Empowerment of Adolescents on Probation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하위 영역 가운데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존재의식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주장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 가운데 개인내적, 대인관계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사회적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및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 | 진로정체감 | 임파워먼트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career identity and empowerment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bility, goal orientation, distinctiveness and self-presence consciousness in the sub-area of career identity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self-assertion.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n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sub-area of empowerment of the subjects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tical-social area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identity and empowerment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and empowerment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further studies on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are needed and care should be paid to its usability.

■ keyword : |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 Career Identity | Empowerment |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4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5월 28일

수정일자 : 2015년 05월 18일

교신저자 : 허정철, e-mail : jcheo@kwu.ac.kr

## I. 서론

청소년기의 비행은 발달단계상 과도기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심신의 미숙함, 부족한 판단력과 자제력, 단순하고 충동적이며, 일시적인 범행동기 등 그 원인과 특성면에 있어서 성인범죄와는 상이한 점이 많고, 설사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범죄의 습성이 뿌리 박혀있지 않다는 점과 긴 미래가 남아 있다는 점 등 회복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개선 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적 개입이나 혹은 바람직한 주변의 여건과 상황 변화 요인들이 그들의 이후 발달과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소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3]. 이처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도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론에 의하면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 혹은 주요 성인과의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 하면 할수록 그 성인들은 그들의 인적·경제적 자본을 아동 및 청소년에게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4][5].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지지나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 책임지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oleman은 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인적 자본이나 물질 자본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6]. 즉 사회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비행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가정의 인적·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빈곤 청소년의 불리함을 상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허정철[7][8]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도덕성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하였다. 이 연구들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자기성장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존중, 타인존중,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청소년 내부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계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부 자원인 사회적 자본찾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창순[9]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직업의 특성, 직업의 조건, 직무, 자신의 신체적 조건, 미래 사회의 직업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낮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 결정하려는 경향이 낮다고 하였다. 이회란[10]은 비행청소년의 진로의식 발달이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같이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일반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여건이 더욱더 열악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사회적자본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이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적자본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지지,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역량강화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둘째,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자본

한 개인의 내부에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구조에서 나타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자본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이 가진 자본 중 인적·물적 자본과는 달리 인간관계의 다양한 연결로 인해 유형·무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 친지, 지역사회의 관계 등 혈연, 지연, 학연이 사회적 자본 생성의 형성 바탕이 된다[11]. Coleman[4][6]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간의 관계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으로 행위자의 이익실현 행동을 촉진시키는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연계망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데 있다[12]. 사회적 연계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력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Putnam[13]은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호혜적 규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정서적 지지, 정

보 및 물질 교환 등이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규범, 기대,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4].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에 의하여 발생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복합적인 관계의 자본으로 각종 집단, 학교, 가족, 특정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Putnam[13]의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자본을 개인간의 네트워크, 참여, 신뢰를 통해 축적된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 2. 진로정체감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일의 세계와 자신을 연결 짓는데 영향을 주는 토대라 할 수 있다[15]. 광대섭[16]은 진로정체감을 자아의 이해와 일 및 직업세계의 이해라는 두 축을 토대로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강혜영[17]은 진로정체감의 형성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심신에 관한 여러 가지 상태, 대인관계의 질과 양, 가치관 및 이와 관련된 자기 행동 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신의 적성, 흥미, 성적, 신체적 조건은 어떠한지,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둘째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정보수집이다. 진로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업분류, 직업의 종류, 직업 정보 탐색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인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인하여 진로선택에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의미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일을 통해서 개인이 행복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Holland[18]는 진로흥미이론에서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진로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이라고 하였다.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 대안의 수가 적으며 진로의사결정에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진로정체감이 낮다는 것은 다양하고 공통점 없는 진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19].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등이 있다.

###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개인 내부의 힘을 발견하여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의 지위를 향상시켜 개인적, 관계적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시켜 개인의 변화는 물론 주제성을 획득해 나가는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파워를 키워 내고 성장시키고 발현시키는 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모든 활동, 즉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20]. 임파워먼트를 개인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길러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21].

청소년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는 첫째, 청소년에게 사회적 자원과 권력의 획득을 통해서 자신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대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집단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의식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범위에서 자신과 다른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셋째, 문제해결과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준다. 즉 책임감을 갖고 자신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22].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임파워먼트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구성한다.

### 4. 사회적 자본과 진로정체감

박부옥[23]은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직업포부수준과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직업선택에 부모의 관심과 조언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신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해져 가족이 느끼는 행복감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김현주·김준영[24]은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진로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대화가 성공적인 진로 이행을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심경섭·설동훈[2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직업적 포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직업적 포부란 자신이 장래에 가지기를 희망하는 직업으로서, '특정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을 의미한다[26]. 그러므로 직업적 포부는 진로정체감의 하위 요인인 목표지향성과 매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 포부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 종사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위 직종의 핵심적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고위 직종을 자신의 장래 희망 직업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최은진·육혜련[11]은 사회적 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년원생들의 임파워먼트 증진은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에 비해 참여 후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은 참여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회기수가 늘어갈수록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의 발견으로 소년원생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꿈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꿈이라 인지하게 되었다.

남궁은숙·신영화[27]는 사회환경요인인 다른 성인 지지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 외에서 만나는 다른 성인들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힘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멘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수연·김형모[28]는 사회적 지지가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중에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비행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에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미

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임파워먼트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 2. 프로그램 구성

최은진·육혜련[11]의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수정하여 [표 1]과 같이 멘토링 활동으로 1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 회기당 120분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관계형성단계, 목표설정 및 목표다짐, 전행동탐색단계, 목표행동화, 종결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청소년이 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다. 특히, 멘토-멘티 면담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표 1.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

영역	회기	프로그램	활동내용	기대효과
관계형성 단계	1	멘토-멘티 결연식	프로그램 목적 및 진행과정 소개 라포형성(자기소개) 사전검사 실시	신뢰감 형성
	2	어등산등반	멘토-멘티 등반	
목표 설정 및 목표다짐	3	지금 나에게 필요한것?	대상자의 욕구탐색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 찾기, 자신의 비전 설정 나에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탐색, 멘토-멘티면담	기본욕구파악 비전설정 필요한 자원탐색
전행동 탐색 단계	4	청소년의 강점개발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알기 멘토-멘티 면담	자신감향상
	5	사례회의 1	활동내용 점검	수퍼비전 사례지도
	6	직업학교체험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스쿨	직업체험
	7	봉사활동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장애아동 일일교사 (봉사활동)	봉사에 대한 보람
목표 행동화	8	나도 스타! 활동평가	원하는 진로와 현실상황 비교 진로준비 활동을 점검, 결심 및 실현가능성 인지, 멘토-멘티면담	진로준비
	9	진로계획 및 생애 설계	인생최종 목표와 중간목표 세우기 실현가능한 방법찾기 구체적인 진로계획세우기 멘토-멘티 면담	진로계획
	10	사례회의 2	활동내용 점검	수퍼비전 사례지도

	11	진로체험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제과빵 만들기	직업체험
종결/ 평가	12	평가회의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재확인 및 반복학습 사후검사 실시 칭찬 및 경험나누기	효과성 측정 종결감정 나누기

### 3.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은 실험집단에게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서 점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프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실험집단	O <sub>1</sub>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x)	O <sub>2</sub>
통제집단	O <sub>3</sub>		O <sub>4</sub>

실험집단: 프로그램실시, 통제집단: 프로그램실시하지 않음

###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014년 4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집단은 참여를 원하는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중 12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중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12명을 선정한 후 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5. 연구도구

#### 1.1 진로정체감 측정도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등[29]이 사용한 자아정체감 검사, Dignan[30]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검사를 박아청이 개편한 검사를 참고로 조은주[31]가 진로관련 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안정성(6문항), 목표지향성(6문항), 독특성(6문항), 자기주장(6문항), 자기존재의식(6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정체감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 : 역문항)

요인 구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사전검사 (α)	사후검사 (α)
안정성	6	1*, 6, 11*, 16*, 21*, 26*	.74	.75
목표지향성	6	2, 7, 12, 17, 22*, 27*	.94	.93
독특성	6	3, 8, 13, 18, 23, 28*	.86	.88
자기주장	6	4, 9*, 14, 19, 24, 29	.72	.82
자기존재의식	6	5, 10, 15, 20, 25, 30*	.84	.93
합계	30			

#### 1.2 임파워먼트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김희성[32]이 개발한 청소년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개인내적(21문항), 대인관계(26문항), 정치사회적(11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임파워먼트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 : 역문항)

요인구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사전(α)	사후(α)
개인내적	21	1,2*,3*,4*,5,6,7,8,9,10,11*, 12*,13*,14*,15,16*, 17*,18*,19,20*,21	.91	.95
대인관계	26	1,2,3,4,5,6,7,8,9,10,11,12, 13,14,15,16,17,18,19,20,2 1,22,23,24,25,26	.89	.92
정치사회적	11	1,2,3,4*,5*,6,7,8*,9,10,11*	.77	.81
합계	58			

### 6. 자료분석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가 얼마 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진로정체감 및 임파워먼트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정체감 및 임파워먼트 척도의 사전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 및 임파워먼트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 가. 진로정체감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 사전검사 비교

진로 정체감	집단 (N=12)	M	SD	t	p
안정성	실험집단	3.1875	.3720	.562	.532
	통제집단	2.9633	.4902		
목표지향성	실험집단	3.4167	.8728	.354	.635
	통제집단	3.3561	.6325		
독특성	실험집단	3.2917	.4249	.307	.724
	통제집단	3.1574	.4013		
자기주장	실험집단	3.8542	.4666	.276	.832
	통제집단	3.7246	.3342		
자기존재 의식	실험집단	3.3333	.6424	-.247	.856
	통제집단	3.4235	.7342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 전 하위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진로정체감에서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었다.

###### 나. 임파워먼트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임파워먼트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임파워먼트 사전검사 비교

임파워먼트	집단 (N=12)	M	SD	t	p
개인내적	실험집단	2.8929	.5463	-.542	.565
	통제집단	2.9425	.4632		
대인관계	실험집단	3.5288	.4820	.649	.478
	통제집단	3.4586	.5318		
정치사회적	실험집단	2.9659	.5232	-.673	.346
	통제집단	3.1004	.613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임파워먼트에서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 가. 진로정체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사회적자본찾기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정체감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 정체감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안정성	실험	3.1875	.3720	3.7917	.6408	-3.293	.013
	통제	2.9633	.4902	2.9804	.5374		
목표 지향성	실험	3.4167	.8728	4.2292	.8306	-10.167	.000
	통제	3.3561	.6325	3.2315	.6317		
독특성	실험	3.2917	.4249	3.9167	.6424	-3.638	.008
	통제	3.1574	.4013	3.0425	.4932		
자기주장	실험	3.8542	.4666	4.2917	.8201	-1.909	.098
	통제	3.7246	.3342	3.8654	.7135		
자기존재 의식	실험	3.3333	.6424	3.9167	.8774	-2.824	.026
	통제	3.4235	.7342	3.5574	.6732		

위 [표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정체감 하위 영역가운데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존재의식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주장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탐색을 하고, 직접 직업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진로정체감

확립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로정체감 영역 가운데 자기주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지력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주장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임파워먼트 사전·사후검사 비교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임파워먼트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임파워먼트 사전·사후검사 비교

임파워먼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개인내적	실험	2.8929	.5463	3.6429	.7095	-4.922	.002
	통제	2.9425	.4632	3.1002	.4737	-1.124	.178
대인관계	실험	3.5288	.4820	4.1962	.4934	-2.954	.021
	통제	3.4586	.5318	3.5617	.5327	-.475	.642
정치 사회적	실험	2.9659	.5232	3.2273	.7637	-1.676	.138
	통제	3.1004	.6135	3.2435	.6541	-.786	.415

위 [표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임파워먼트 하위영역 가운데 개인내적, 대인관계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대학생 멘토와의 개인면담과 단체활동시간에 적극적인 칭찬과 격려를 통해 개인내적,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파워먼트 영역가운데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

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하위 영역가운데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존재의식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주장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 가운데 직접 바리스타학원이나 제과빵 직업학교에서 체험을 하고, 멘토와의 개인면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청소년은 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으며, 어떤 청소년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고,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자격증 준비를 하였다. 특히, 멘토 대학생들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멘토 대학생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친구처럼 재미있게 놀아주고, 함께 하는 활동들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매우 밝아지고, 시간약속도 잘 지키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지만 진로정체감 영역가운데 자기주장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아직 나이들이 어려서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지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주장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자본이 청소년의 직업선택 과정에서 직업포부수준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 준다는 박부옥[2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한다는 심경섭·설동훈[24]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또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가운데 개인내적, 대인관계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사회적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자

본찾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체 활동이나 개인면담 시간에 대학생 멘토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을 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가림이 심한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멘토들이 먼저 연락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아주고, 단체활동시간에도 옆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지속했던 것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임파워먼트 영역 가운데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관찰, 면담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최은진·육혜련[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자본찾기 멘토링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이 멘토가되어 그들의 강점을 찾아주며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때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면서 잠재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발굴해 연결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사회적자본들을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참 고 문 헌

[1] 조혜정, 청소년 재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 김기환, “2010년 보호관찰 정책연구과제 지역사회자원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pp.327-467, 2010.

[3] 광주보호관찰소,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제5기 멘터 프로그램 집행 결과보고서, 2010.

[4] J. S. Coleman,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5] R. B. Jr. McNeal, “Parental invest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fecitiveness on science achi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Vol.78, No.1, 1999.

[6]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S95-S120, 1988.

[7] 허정철,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93-302, 2012.

[8] 허정철,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도덕성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155-163, 2013.

[9] 하창순,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이회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진로요구, 직업가치, 진로성숙의 차이*,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 최은진, 육혜련, “사회적 자본 찾기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증진과 사회적 지지의 인지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 : 의료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1-22, 2011.

[12] J. Field,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3.

[13] R. Putnam, “Bowling Alone: America’s

-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 pp.65-77, 1995.
- [14] V. E. Lee, and R. G. Croninger,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case of education, ED 412 629, 1996.
- [15] 피기용,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성숙도와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6] 광대섭,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7] 강혜영, "대학생 진로개인상담모델: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을 중심으로", *학생연구*, 제36권, 제1호, pp.55-66, 2002.
- [18]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1985.
- [19] 유정이, 황매향, 임지현, "진로정체감 검사의 중고등학생 규준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101-114, 2005.
- [20] 전종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대한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1] 문선향,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효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2] 배운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권리옹호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3] 박부옥, *학생의 성 및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직업선택과정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김현주, 김준영,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p.23-52, 2010.
- [25] 심경섭, 설동훈,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pp.33-59, 2010.
- [26] L. S. Gottfredson,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pp.545-579, 1981.
- [27] 남궁은숙, 신영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북 도시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4호, pp.29-61, 2011.
- [28] 이수연, 김형모,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비행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44호, pp.189-211, 2013.
- [29] J. J. Holland, D. C. Gottfredson, and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1191-1200, 1980.
- [30] M. H. Dignan,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 No.5, pp.476-483, 1965.
- [31] 조은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2] 김희성,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4권, pp.91-113, 2002.

저 자 소 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